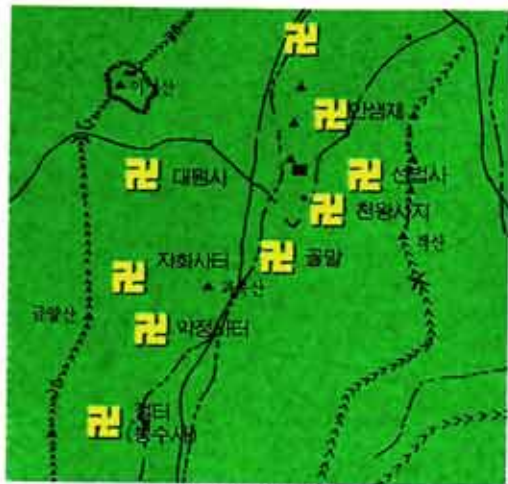


土種 홍화씨
 興國農産 합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지리 합양은 재배의 적지
 ● 합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계 품종
 ● 재배법은 연구용 품종 무수 품종 생산

◎ 전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60)070-1300

하남시, 백제불교 초전지 '가능성'



하남시 불교유적 분포도

사지 14곳·마애불·불상·탑지등 정보 산재
 백제문화연구회 "천왕사 마라난타 창건사찰 분명"



금암산 마애불, 백제시대 조성된 태인 마애불과 양식이 비슷하다.

곳 뿐이다. 따라서 동사지의 정확한 쓰임과 규모 그리고 연대를 밝히기 위해서는 재발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학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 선법사와 금암산 마애불

객산과 금암산에서 각각 하남위례성으로 추정되는 곳을 바라보고 있는 불상이 바로 선법사와 금암산 마애불로 제작 연대는 삼국시대. (남한비사)에는 "순공리 사리고개에 있는 석불은 도성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기록이 있다. 백제문화연구회는 두 곳의 마애불도 왕궁의 동·서에서 동일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고려 경종 2년에 중수했다"는 명문이 새겨진 선법사 마애불 발 밑에서 "발연일" 연화대가 발견됐는데, 그 중심에 3개의 원이 새겨져 있었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3방을 중시한 백제시대의 마애불이 중수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남한비사)에는 악정마애불 인근 악수터의 물을 백제왕이 먹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부여의 고관사에도 똑같은 기록이 있다.

금암산 마애불은 동국대박물관이 조사했던 마애불로, 가슴에 굵은 띠를 묶은 태인마애불과 흡사하다고 보고 왔다. 1차 발굴 주름은 백제 마애불의 특징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악정마애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 악정사지·자화사지

악정사지는 황동에서 서쪽으로 금암산능을 따라 약 500m 거리에 있는 사지로 92년 '악정'이라고 새겨진 기와편이 발견돼, 이 일대가 백제의 초도였을 가능성을 높여준 사지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악정사는 한산에 있다"는 기록이 있다. 자화사지는 금암산 정상에서 동쪽 능선에 위치한 사찰로, 1차 지표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 사찰로 추정되고 있지만, (남한비사)에는 일제시대 도리이가 이곳에서 '법통사'라고 쓴 와편을 발견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자화사지의 발굴에 들어 가면 이곳의 창건 연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 유적연구

지금까지 하남시에 대한 학술 조사는 세종대박물관의 지표조사와 동국대·한양대박물관의 동사지·이성산성 1차 발굴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 지역 사지와 유물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내년부터 고산동 토성, 천왕사지, 동사지 등의 발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남시의 하남위례성' 설에 새기를 바꿨다는 입장이다.

백제문화연구회 오순재 연구원은 "한산은 남한산을 가깝으로 품어주는 간단한 서로는 금암산을 포함하는 '큰' 산일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고산동 토성의 초석과 적심석 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왕궁지와 백제불교 초전지의 실체가 밝혀지는 것은 물론 하남시는 새로운 불교성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초석군 발굴에서 기대를 모았다.

■ 문헌기록

<신증동국여지승람> "광주조" = "악정사는 한산에 있다."

<고려사>, <고려사절요> = "신종이 공민왕 15년(1366) 4월에 재상들과 함께 광주 천왕사의 불사리를 맞이하여 왕릉사에 두었다."

<세종실록> = "세종 28년(1446) 4월 23일에 광주 천왕사의 사리 10과를 길내에 바쳤다."

<동국여지승람> = "백제의 옛 도읍지인 하남위례성의 왕궁지는 궁중(현재 순공동)으로 불이 가할 것이다."

<남한비사> = "서부면 순공리의 사리고개에 있는 석불은 백제 때에 외부로부터 수도로 통하는 고개에 불상을 두어 수호신으로 도성의 안전을 기원했다."

'원종국사혜지탑' = "원종대사가 양주 삼각산 장의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는데 태조 왕건이 그를 모셔와 광주 천왕사에 주지로 있게 하였다."

오종욱 기자(jcboou@buddhania.com)

삼국시대의 불교문화가 숨쉬는 땅. 시 면적의 대부분이라 할 90%가 71년부터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그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 경기도 하남시에 사학·고고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대박물관이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하남시 전역에서 실시한 제2차 지표조사 결과 개두사지, 봉수사지, 상가창동사지, 범골사지, 신복선사지, 하산곡동사지 등 절터 5곳과 불교유물 2기를 추가 발견하고, 고산동 토성에서 하남위례성으로 추정되는 초석과 적심석 90여 개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가 백제왕조 6백60년 가운데 기원전 18년에서 기원 475년까지의 한성백제 시기의 수도인 하남위례성이자, 마라난타가 침류왕 2년에 짚을 새웠던 백제불교의 초전지로도 추정되고 있다.

90년대 초부터 하남시 고산동 토성을 하남위례성으로 지목해온 백제문화연구회(회장 복선규)도 초석과 적심석군에 주목하고 "이곳이 왕궁터로 밝혀진다면, 마라난타가 창건했던 백제불교의 초전지는 천왕사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고대국가에서는 방위와 수호신을 중시했고, 동종의 왕실불교를 수용한 백제가 왕궁을 중심으로 각 방위에 사찰과 성물을 두었다는 후문이다. 부여의 백제 왕궁터인 부서산성 남쪽에 정림사지가 있듯이 고산동 토성 남쪽 사지 역시 그와 같은 격의 대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하남 지역에는 14곳의 사지에 불교유적이 산재해 있으며, 이 가운데 고산동 토성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선법사 악정마애불, 서쪽에는 동사지와 금암산 마애불, 남쪽에는 천왕사지, 북쪽에는 고산동 복단사지 등이 있다. 하남시의 주요 사지와 유물을 살펴본다.

■ 천왕사지

광주항교에서 남동쪽으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하사창동 팔말 부근의 절터로, 1·2차 지표조사를 실시했던 세종대박물관은 주초석 분포로 보아 대략 사지 규모를 1만평 이상으로 추정했다. 1차 조사에서 고려 초기에 제작된 '명문 기와' '대형 좌대' 등이 발견돼 고려 초 창건된 사찰로 추정됐으나, 2차 조사에서 사지 내 민묘의 뒤쪽에서 거대한 사리공 석재가 발굴, 천왕사 창건 연대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사리공 석재 주변에서 다량의 전등과 난간석이 나와 전탑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곳에서는 높이 2.88미터에 달하는 국내 최대 '광주 철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 발굴되기도 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다량의 슬래그가 발견돼 천왕사에서 직접 주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천왕사의 기록은 '원종국사혜지탑' (고달사지 소재)과 <고려사> 등에 있는데, 비문에는 "태조 왕건이 양주 삼각산 장의사에서 구족계를 받은 원종대사를 모셔와 광주 천왕사 주지로 있게 했다", <고려사>에는 "신종이 공민왕 15년 4월에 재상들과 천왕사의 불사리를 맞이했다" 등이 남아있다. 고려 태조가 친히 당대 고승을 추석케하고, 불사리가 있을 만큼 천왕사는 지리·정신적으로 왕실과 가까웠던 대찰임을 짐작케 한다.

■ 동사지

동사지는 이성산 남쪽 고골저수지 부근 아산 기슭에 자리잡은 절터다. 1차 발굴을 시도했던 동국대박물관은 출토된 유물을 토대로 10세기경 중흥된 '광주동사'로 밝혔다. 또 초석의 규모로 이곳의 대웅전이 경주 황룡사의 금당에 필적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초석될 내에 있는 석재 팔각대좌를 발굴했다.

그러나 초석은 대웅전터로, 그 안에서 발굴된 팔각대좌는 본존불을 봉안했던 것으로 추정된 동국대박물관과는 달리 팔각대좌 중앙에 나있는 '구멍'에 초점을 맞춰, 팔각대좌는 '심초석'에 가깝고 주변 초석에는 목탑 기둥을 세웠다는 의견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즉, 대웅전터보다는 목탑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백제문화연구회가 동사지에서 1.6미터 크기의 '차미'를 발굴했는데, 지금까지 국내에서 차미가 발굴된 곳은 왕사(王寺)와 격을 갖춘 미륵사지와 황룡사지 두



②



③



④

- ① 선법사 마애불, 고려초 중수했다는 명문이 남아있고, 마애불 아래에서 "발연일" 연화대가 발견돼 백제시대에 조성된 마애불로 추정된다.
- ② 백제문화연구회가 찾아낸 악정사 명문 기와, 하남시 일대가 한산임을 증명해 주는 유물이다.
- ③ 천왕사 명문기와, 고산동 토성을 왕궁지로 볼 때 남쪽에 위치한 천왕사는 백제불교 초전지일 가능성이 크다.
- ④ 천왕사 사리공 석재(160x140), 석재 주변에서 다량의 전등이 발굴돼 전탑의 초석으로 추정된다.

사진제공=전성영(사진작가)